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천년의 향기를 찾아 떠난 춘계사찰순례

연우회에서는 4월 21일 교직원 약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년의 향기가 있는 양평 용문사로 춘계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용문사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 30호로 지정되어 더욱 유명한 사찰이며, 이날 산사에서 보낸 모든 교직원은 봄기운을 맞으며 일상의 잡착에서 벗어나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 용문사 의광 스님은 “생각하는 고통과 슬픔은 인연의 울타리를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나중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법문을 마쳤다.



02 불우환자 돕기 도서바자회 개최

사회사업실에서는 저소득환자를 위한 도서바자회를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서바자회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양문고와 동국대학교병원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해 마련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양서(良書)를 구비하여 서점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좋은 휴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도 쌓고 덤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도서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비에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 '고양YWCA 여성합창단' 공연

4월 16일 1층 로비에서 '고양YWCA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렸다. 2000년 3월 창단한 '고양YWCA 여성합창단'은 노래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의 조화로 음악을 만들어 가는 팀이며, 이날 공연은 환우의 빠른 쾌유와 위로를 위해 총 1, 2, 3부로 나누어 피가로의 결혼, sound of music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선곡하여 감동의 무대로 내원객을 기쁘게 해 주었다.



04 CS이미지에 꼭 알맞는 CS강사 유니폼으로 고객만족의 새로운 바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고객감동 서비스가 병원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통일된 CS강사 유니폼을 제작하여 5월부터 착용하기로 했다. 새로 제작한 CS강사 유니폼은 친절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CS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CS강사들은 “병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한발 앞선 활동으로 고객만족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S강사들은 2006년부터 병원 친절문화정착을 위해 매주 직원조화와 매년 CS교육에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CS강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품격 있는 동국대학교병원 친절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평균 한 사람이 150여명의 고객과 통화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7년 넘게 9명의 남자들이 지하 1층에서 생활하다 며칠전 1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진료예약실(콜센터)이 바로 그 곳입니다.
점점 거친 고객들이 많아져 남자 상담원이 입사하길 고대하고 있다는
김여미 실장을 톡톡 인터뷰가 만나보았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진료예약실 김 여 미

- **본인소개?** 1남 1녀 중 막내, 24살에 입사 현재 31살, 젊은 날을 동국대학교병원에서 보낸 싱글녀입니다~
- **평소 목소리 관리방법?** 물을 많이 먹는 편이다. 무엇보다 중요 한건 긍정적인 마인드
-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몇 교수님들의 이름을 헛갈려 '이명박 원장님', '고문수 변호사님'을 찾으십니다.
- **일하면서 생긴 습관?** 사적인 전화통화시 핸드폰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업무 멘트가 나간다.
- **하고 싶은 말?** 단체 미팅을 요청하시면 언제든 콜~입니다. 진료예약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 리 미

TV 방송 프로그램 : MBC PD수첩 | 주제 :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있다
일시 : 4월 30일(화) 23:00 | 출연 : 산부인과 박현수 교수

